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해달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사업 필수 기반 시설” 주장 재경전북도민회 성명 등 전북지역 각계각층 촉구 잇따라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지역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지난 24일 “새만금 국제공항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이날 서울장학숙 1층 사무실에서 도내 14개 시·군 향우회 사무

총장과 여성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자 국책 사업인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

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부회장은 “새만금 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당장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항 건설을 막는 것은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배치된다”며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해 예

타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전북애향운동본부도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를 비롯해 임원진, 각 시군 해양본부장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애향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과거 전북도민의 극심한 소외와 분노, 지역경제 추락 등 현실을 직시하고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조사 면제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주 대표 친수공간 아중호수에 순환산책로 조성



최근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아중호수에 호수 전체를 1바퀴 돌면서 생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순환산책로 조성이 완료됐다. <전주시 제공>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아중호수에 순환산책로가 생겼다. 이에 따라 아중호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산책로 단절로 같은 코스를 되돌아 나오지 않고 호수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생태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아중호수 0.8km 구간의 산책로를 개통함으로써 지난 2009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한 2.4km 구간의 아중호수 생태공원 순환산책로 조성이 모두 마무리됐다. 순환산책로는 산악로를 비롯해 야자 매트와 침목, 돌계단 등으로 조성됐다. 특히 시는 이번 순환산책로 개통으로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수 인근 불법 경작지와 쓰레기 투기지역을 정비, 40면의 주차장도 조성했다. 시는 앞으로 산책로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고 생태습지를 만들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아중호수 순환산책로 조성에 이어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호수 공원과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면 멋진 도심 속 힐링 공간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완도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항 보고회

지속 가능한 미래사업 발굴 분주

완도군이 최근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사항 최종보고회’를 여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사업 발굴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해양수산, 재난재해, 건강, 생태계, 농업, 물, 산림, 종합 등 8개 부문별 2018년도 주요 성과와 기후변화 주요 리스크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59대, 전기차 보급 17대, 에너지 절감 컨설팅 92곳 등을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펼쳤다. 양봉 산업 활성화 기자재 5종 지원, 해양쓰레기 처리 4500t, 쓰레기 집하장 9개소 운영, 해양보호 구역 2개소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3개소 관리 등 생태계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데 힘썼다. 군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아열대 작물 시험(9품종), 감귤 묘목 지원(55농가), 소규모 하우스 지원(48농가), 병해충방제 드론 운영 등을 추진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특히 수산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 및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군이 앞장서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등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호 기자·전남주재출판본부장

장흥고 재건축 내년말 착공...147억 소요 예상

교육부 승인 절차 마무리

장흥지역 인재요람인 장흥고등학교 본관건물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재난위험시설 평가위원회가 장흥고 본관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설계(용역) 과정을 거쳐 연말에 착공해 늦어도 2021년에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청은 장흥고 본관 재건축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총 147억여원 예상되며 이 가운데 교육부의 국고 지원금은 110억여원 정도이며 나머지 40억여원은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고 건물 재건축 승인은 학교와 학부모측 뿐 아니라 지역 동문들이 현안문제로 즐기자게 건의해 오다 지난 7월 전

남교육청이 ‘교과교실제 도입 희망학교’ 현장방문 실시점검 때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진들로부터 조건부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으로 신속히 재건축해야 한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이후 교육청이 교육부에 재건축을 승인요청해 이뤄지게 됐다. 장흥고 본관은 지난 1972년부터 매년 증축형태 건물로 너무 낡았고 동파와 누수로 인해 냉·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2015년 이후 올해까지 20여건 이상의 보수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10억여원에 달하는 보수예산이 소요됐다. 또 증축된 교사동 건물이 47년이 지난 표준형 편복도 구조로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잦은 보수공사로 인해 학습권 침해와 교과교실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

정읍시농기센터, 베리류 특가판매 행사

단풍미인쇼핑몰서 30일까지 복분자·오디 등 최대 50% 할인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단풍미인쇼핑몰(사진)을 통한 베리류 특가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베리류 가공상품 등의 저렴한 판매를 통한 소비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 이번 특가판매 행사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복분자·오디·블루베리·블랙베리·아로니아즙과 동결건조분말, 아로니아환, 블랙베리초콜릿, 짜먹는 타먹는 블루베리 등의 가공상품을 최소 20%에서 최

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 기간 동안 배송비는 무료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에 접속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정읍시농기센터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베리류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해 판매를 활성화하고 생산농가의 판로확대와 매출증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베리류 판매 촉진을 위해 대형 포털사이트 배너광



고, 키워드 마케팅, 페이스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세계 갑각류 모인 ‘계판5분展(전)’ 29일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세계 각국의 다양한 갑각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계판5분展(전)’이 29일부터 남원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열린다. 남원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내외 50종, 2000 마리의 게, 가재, 새우가 선보인다. 어린이를 위해 갑각류를 직접 만져보고 잡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관람료는 성인 기준 2000원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활동 주력

고창군은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은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균형 홈페이지와 지역의 전광판을 활용해 예방법을 게시해 알리고 있다. 또 각 마을회관과 아파트 등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소량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소량의 수도꼭지를 개방할 것과 계량기 함밸브 잠그기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있

다. 아울러 계량기 동파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4개 응급복구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간다. 동파로 인해 수도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수도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올 겨울에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파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SUNLAKE VILL 전원마을 조성단지



나주, 다도댐 부근,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150평~200평 개별 매매 가능
- 주인직매. 010-2680-8685

세울터건축사사무소(주)